

# 古新羅, 加耶古墳出土 樹木形・樹木鹿角形立飾冠에 대한 研究

A study on the Tree-typed and Tree and Antler-typed Diadem  
in the old tombs of ancient Silla, Gaya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김문자

Suwon Univ. Col. of Human Ecology Dept. of Clothing & Textiles  
Associate Professor: Kim, Moon-Ja

## 〈목 차〉

- |                   |                |
|-------------------|----------------|
| I. 序言             | Ⅲ. 樹木鹿角形立飾冠    |
| II.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 | IV. 結論<br>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of the Tree-typed and Tree and Antler-typed Diadem in old tombs of ancient Silla, Gaya.

First, Tree-typed Diadem is four part in according to the Mountain(; 山)-typed piled up. Only one Mountain(; 山)-typed one in three stand-up ornament( I -1 Style), and three step one in three stand-up one( I -2 S.), modification one ( I -3 S.), or three step one of five stand-up ones( I -4 S.).

Tree and Antler-typed diadem is three part in according to the step of Mountain (; 山)-typed and cross-shaped of the upper part. Three one of three step one of Mountain(; 山)-typed and two Antler- typed ( II-1 S.), cross-shaped one(II-2 S.), four step one(( II-3 S.).

They were influenced by Tree worship and cult of deer in Northern mounted nomadic groups.

### I. 序言

본 論文은 三國時代 金冠類로 불리는 臺輪式立飾冠 중에서 古新羅, 加耶古墳出土 樹木形(山字겹침식)

과 樹木鹿角形立飾冠의 樣式을 분류하고 그에 따르는 형태를 考察한 것이다.

樹木形立飾冠과 樹木鹿角形立飾冠은 보통 三國時代 金冠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중에서 대표되는 형

태이나 지금까지의 考古學관계나 考古美術學관계 연구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금관 류와 混在되어 고찰되거나, 또는 나라별(즉, 古新羅, 加耶등의) 형태상의 특징 등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樣式의 자세한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古新羅, 加耶의 고분출토품들을 중심으로 좀더 세분화된 양식분류를 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양식분류를 주목적으로 하였으므로 古新羅, 加耶의 유물을 함께 양식분류에 넣었는데, 이는 우선 유물의 숫자가 너무 적고, 또한 古新羅와 古新羅에 합병된 加耶는 그 지역적인 면이나 시대상의 유사성에 의하여 거의 동일한 복식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소간의 차이점에 도 불구하고 같은 양식분류에 넣어 고찰하고자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확실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면 古新羅와 加耶의 독자적인 樣式分類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의 그림자료는 圓形으로 되어 있는 臺輪式 冠의 특성상 그 자세한 형태가 실물사진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로 展開圖面을 사용하여 양식분류에 사용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樹木形(山字점침식)立飾冠과 樹木鹿角形立飾冠의 源流에 대한 考察은 이미 先行 研究<sup>1)</sup>가 되어 있으므로 본 考에서는 간단한 보충설명으로 대신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 II. 樹木形(山字점침식)立飾冠

古墳 出土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樹木形(山字점침식)立飾冠은 立飾의 수와 山字점침의 수, 형태에 따라 대략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I-1式: 대륜 위에 1단의 山字式立飾을 3개 세운 양식  
(卍 卍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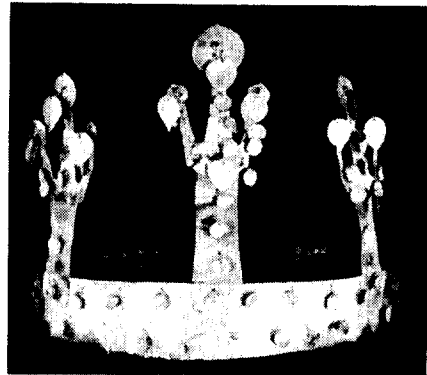
I-2式: 대륜 위에 3단의 山字점침式立飾을 3개 세운 양식(卍 卍 卍)

I-3式: I-2式과 구성방법은 같으나 山字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卍 卍 卍)

I-4式: 대륜 위에 3단의 山字점침式立飾을 5개 세운 양식(卍 卍 卍 卍 卍)

### 1. I-1式

臺輪에 1단의 山字式立飾을 3개 세운 형태이다.  
古新羅 慶州 校洞 出土 金冠 <그림 1>



<그림 1> 金製 樹木形(山字式)立飾冠

古新羅 慶州 校洞 出土

『韓國美術全集』2

金製 薄板 臺輪의 정면과 좌우에 先端이 寶珠形인 立飾 3개를 세웠는데, 정면의 입식은 좌우의 입식에 비해 크기는 크나 형태는 3개가 동일하다. 하부는 넓고 중간에서 상부에 이르러 3枝로 갈라져서 先端이 寶珠形을 이루었다. 대륜에는 상하 2단으로 중간 격으로 圓形小瓔珞을 금선으로 엮갈리게 매어 달고, 입식의 세 가지의 갈라지는 중앙부와 세 가지의 先端 중심에 心葉形瓔珞을 단았고, 입식의 다른 부위에는 圓形小瓔珞을 매달았다. 高 12.8cm, 臺輪直徑 14cm, 臺輪幅은 3cm이다.<sup>2)</sup>

1) 金文字, 『韓國服飾文化的 源流』, 서울: 民族文化社, 1994, pp.7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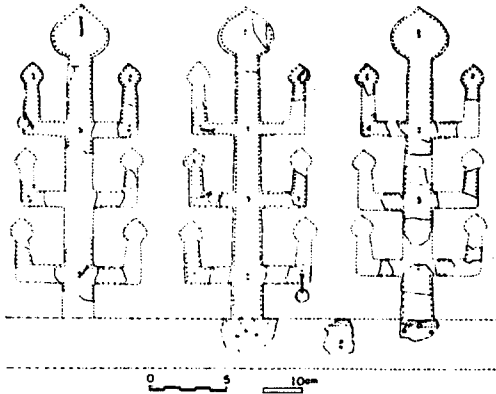
2)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社, 1975, p.135.

2. 1-2 式

臺輪에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을 3개 세운 형이다.

〈古新羅지역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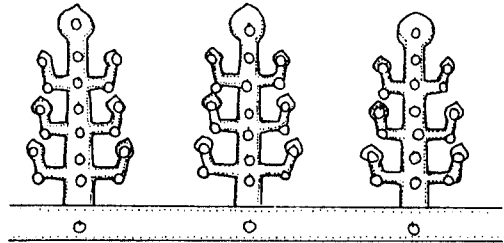
(가) 경주 天馬塚출토 金銅冠 〈그림 2〉



〈그림 2〉 金銅製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  
古新羅 慶州 天馬塚出土 金銅冠  
-「天馬塚」

대륜의 안쪽에 붙여 높이 약 20cm되는 삼단의 山字겹침식立飾 3개가 세워졌는데 각 입식 끝은 寶珠形으로 되어 있다. 입식의 하단 폭은 2.2cm, 상단 폭은 1.7cm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는데 側枝에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좁아진다. 입식의 周緣에 따라 한 줄의 點線文이 打出되었으며 대륜도 周緣에 따라 각기 두줄의 점선문이 타출되고 그 안에도 점선으로 된 波狀文을 타출하였다. 입식의 分枝點과 側枝의 꺾이는 부분, 各地의 상단에는 圓座를 타출하여 여기에 圓形環珞을 달았으며 대륜에도 圓座에 圓形環珞이 달렸던 흔적이 보인다.<sup>3)</sup>

(나) 湖巖美術館所藏 金銅冠 〈그림 3〉



〈그림 3〉 金銅製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  
湖巖美術館所藏  
-「湖巖蒐集韓國美術特別展」

높이가 20.6cm, 臺輪直徑이 16.1cm인데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이 3개 세워져 있다. 대륜 양쪽에 15.6cm의 垂飾이 달려 있다. 입식의 줄기와 가지의 先端은 모두 寶珠形이고, 보주형과 줄기와 가지의 교차부위, 가지의 상향부위, 山字를 이루는 줄기의 중앙부에 小心葉形環珞을 매어 달고 대륜에도 등간격으로 小心葉形環珞을 달았다.<sup>4)</sup>

(다) 慶州 皇南洞 第98號墳 南墳 出土 金銅冠

3식이 출토되었는데 被葬者에 1개가 씌워졌고 副葬品 收藏部內에 2개가 발견되었다. 3개 모두 대륜 위에 樹枝形立飾 3개만 세워고 대륜 周緣에는 2條의 점선 내에 1條의 點線波狀文을 둔치고 일정 간격으로 硬玉製曲玉과 圓形環珞을 매어 달고 각 입식 周緣에는 打出點列이 한줄 둔치고 있다. 각 側枝의 分岐點, 굴곡부, 寶珠形頂部에 小形 硬玉製曲玉을 달고 곡옥과 곡옥 사이에는 圓形環珞을 달았다. 전체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높이는 28cm이다. 被葬者 착장 관에는 全長 34cm의 金製 冠垂飾이 좌우 양측에 달려 있다.<sup>5)</sup>

3) 文化財管理局, 「天馬塚」, 1974, p.99.

4) 國立中央博物館(編), 「湖巖蒐集韓國美術特別展」, 1971,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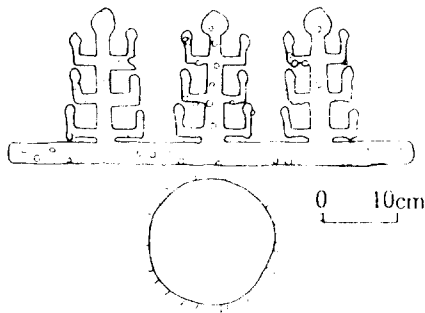
5) 文化財管理局, 「慶州皇南洞第98號墳(南墳)發掘調查略報告」, 1976, p.20.

## (라) 慶州 壺杆塚 出土 金銅冠

대륜 폭이 8cm이고 4cm 내외의 폭의 山字겹침式立飾이 서있다. 입식은 2.4cm 폭의 가지가 양측으로 뻗어있고 金銅小圓形瓔珞이 달려 있으나 曲玉은 없고 冠内部에는 섬유질이 부착되어 있었다.<sup>6)</sup>

〈加耶지역 出土〉

昌寧 校洞 第7號墳 出土 金銅冠 〈그림 4〉



〈그림 4〉 金銅製 樹木形(山字겹침式)立飾冠  
加耶 昌寧 校洞 第7號墳 出土  
-「昌寧校洞古墳群」

폭이 3cm인 대륜에 山字겹침式立飾 3개를 각각 3개의 못으로 세운 것으로 대륜의 上下緣에 波狀點列文을 施文하고 있다. 입식의 先端이 寶珠形이고 左右兩緣에는 點列文을 打出하고 前面에 圓形小瓔珞을 매어 달았다. 관높이는 18.2cm이다.<sup>7)</sup>

大邱 飛山洞 第 37號墳 第1石槨 出土 金銅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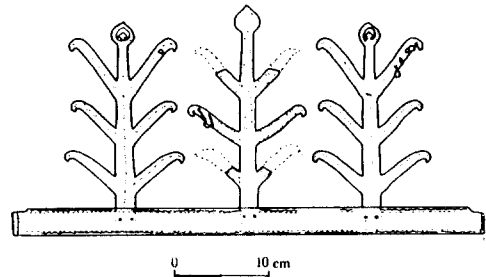
폭이 약 3cm의 金銅薄板으로 만든 대륜에 3단의 山字겹침式立飾 3개를 세운 것으로 보이나 정면과 좌측입식만이 달려있고 우측입식은 부식되어 수습하지 못한 듯하다. 입식의 높이는 20.5cm로서 3개를 정면과 양측에 각각 하나씩 2개의 못으로 부착 고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입식의 줄기나 가지의 先端은 모두 寶珠形을 이루었다. 대륜과 입식의 周緣에는 打

出點線文을 돌리고 줄기의 寶珠, 줄기와 가지의 교차부위, 가지의 상향되는 부위, 가지의 寶珠에 볼록하게 圓座를 만들고 거기에 瓔珞을 鍍金線으로 매어 달았는데 대륜에도 입식과 대륜의 접합부와 입식과 입식 사이에 小心葉形瓔珞을 매어 달았다. 대륜의 양단에는 垂飾을 달기 위함인지 小瓔이 달려 있다. 臺輪直徑은 대륜의 일부가 부식되어 확실치 않으나 18.1cm로 보고되었다.<sup>8)</sup>

## 3. 1-3式

1-2式과 구성방법은 같으나 山字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이다.

加耶 東萊 福泉洞 第11號墳 出土 金銅冠 〈그림 5〉



〈그림 5〉 金銅製 樹木形(山字겹침式)立飾冠  
加耶 東萊 福泉洞 第11號墳 出土  
-「古墳出土 副葬品研究」

臺輪直徑은 18.7cm이고 후면부의 대륜 양단이 7.1cm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 대륜의 현재 직경이 原狀직경과 동일하리라 생각되는 것은 대륜 兩端部 裏面에 0.56cm 정도의 부위에 革帶痕이 남아 있으므로 이 핵대로 연결된 듯하기 때문이다. 대륜 裏面에 11cm간 폭으로 세워진 3개의 對生式 樹枝形입식도 내외 면이 모두 도금된 靑銅板을 오려서 만들었는데 前述한 山字겹침式立飾들과 그 양식은 동일하나 山字의 모양이 특이하다 하겠다. 또한 3개의 입

6) 金載元, 「壺杆塚과 銀鈴塚」, 서울: 乙酉文化社, 1946, pp.24-25.

7)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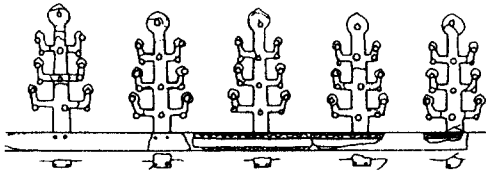
8) 「大正十二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3, p.21.

식은 3단으로 된 것은 동일하나 先端의 寶珠 형태, 瓔珞의 부착 부위 등은 조금씩 다르다. 정면의 입식은 높이 23.5cm이고 중앙의 先端은 寶珠形이며, 각 가지는 斜上方으로 뻗어 先端部에서 反轉外彎하여 뾰족하게 끝났다. 양측의 對生枝 先端 寶珠形은 전면 입식과는 달리 내측을 三葉狀裝飾으로 만들었고 도금된 靑銅製瓔珞은 입식의 줄기와 가지 표면의 중앙부를 따라 부착된 것이 前面部 입식의 瓔珞 부착부위와 다르게 선단의 寶珠 輪部の 중간부위 까지 부착되었다. 영락의 크기, 형태, 연결기법은 前面部 입식과 동일하고 입식의 底端은 方形狀으로 下端의 1.4cm 정도의 부위를 대륜 내측에 대고 2개의 圓頭釘으로 접합시켰다.<sup>9)</sup>

#### 4. 1-4식

대륜 위에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을 5개 세운 양식이다.

加耶 東萊 福泉洞 第1號墳 出土 金銅冠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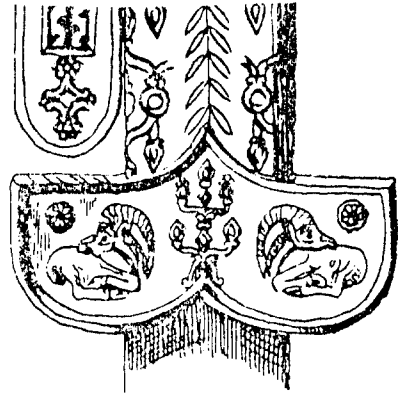
<그림 6> 金銅製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  
加耶 東萊 福泉洞 第1號墳 出土  
-「東萊福泉洞古墳發掘調查報告書」

被葬者の 頭部位에서 발견되었는데 展開한 길이는 76cm이고 입식의 높이는 16.5cm로서 도금한 얇은 銅板製이다.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이 5개가 대륜안에 2개의 못으로 고정 부착되었다. 삼단의 山字겹침식 입식은 위로 올라 갈수록 줄기의 굵기와 가지의 폭이 좁아져 있고 先端은 寶珠形을 이루고 있다. 圓形小瓔珞이 부착되었는데 부식이 심하여 몇 개만이

남아 있다. 대륜과 입식의 周緣에는 打出點線文이 있고 대륜의 全面 상하에는 連續三角形의 點線이 施文되었으며 曲玉類와 垂飾은 달려있지 않은 간단한 형식의 것이다.<sup>10)</sup>

이상으로 古新羅, 加耶古墳출토품들을 중심으로 山字겹침식立飾冠들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出土例각은 관계로 함께 고찰하였지만 현재까지의 出土例로 보면 古新羅地域에서는 주로 1-1樣式이 보이고, 특히 1-2 樣式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륜위에 3개의 立飾을 세우는 형태가 많음을 볼 수 있다. 加耶地域에서는 1-2, 1-3, 1-4 樣式이 고르게 보이거나 수량이 적어 앞으로의 古墳發掘作業에 따라 더 많은 出土品이 나오면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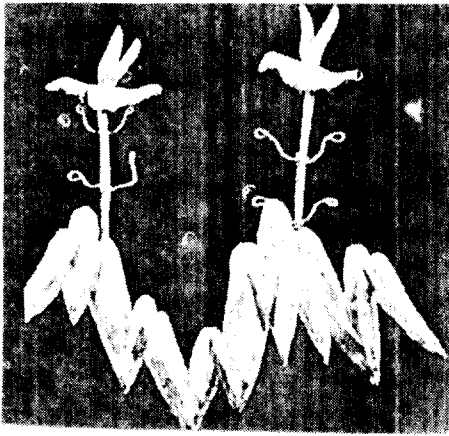
山字겹침 모양으로 보이는 이 관모를 樹木形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古式일수록 그 모양이 뚜렷한데, <그림 4,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입식중 나무기둥에 해당하는 부위가 위로 올라 갈수록 좁아지고 좌우로 뻗은 가지부위도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실제의 나뭇가지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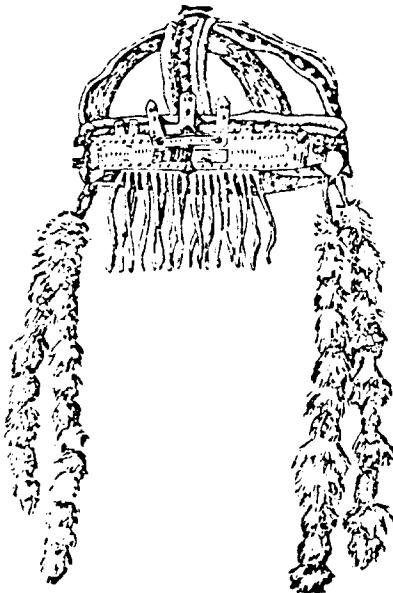
<그림 7> 山字겹침식文  
B.C.6C 스키타이의 Melgunov treasure 劍柄  
-“中國戰國時代における樹木中心文様...”

9) 尹世英, Op.cit. pp.130-32.

10) 東亞大學校博物館,「東萊福泉洞古墳發掘調查報告」, 1970, p.28.



〈그림 8〉 山字겹침식文  
Saka 이즈크 고분출토 金冠文  
-“シバルガンの遺寶”



〈그림 9〉 Tay; Enet族의 관모  
-“The Costume of an Enets Shaman”

이상과 같은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들에 사용된 山字겹침식의 양식은 서아시아 원류의 聖樹文에

서 시작되어 스키타이의 Melgunov treasure 劍柄의 장식문에 보이는 山字겹침식文(그림 7)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山字겹침식의 先端이 寶珠形으로 되어 있는 점도 동일하다 하겠다.

한편 관모의 문양으로 山字겹침식이 보이는 것은 Alma Ata 부근 이즈크 고분출토 금관의 문양(그림 8)을 들 수 있다. 이 금관을 쓴 주인공은 족장과 샤만을 겸한 존재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山字겹침식문양이 샤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같은 山字形 立식이 실지로 샤만의 관모에 사용된 예는 근년에까지 시베리아 샤만에게 착용되었던 ‘Tay’라고 불려 지고 있는 Enet族의 관모(그림 9)에서 중앙에 1개의 山字形立飾이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 Ⅲ. 樹木鹿角形立飾冠

樹木鹿角形立飾冠은 山字겹침식의 형태와 관상부의 十字形의 유무에 따라 대략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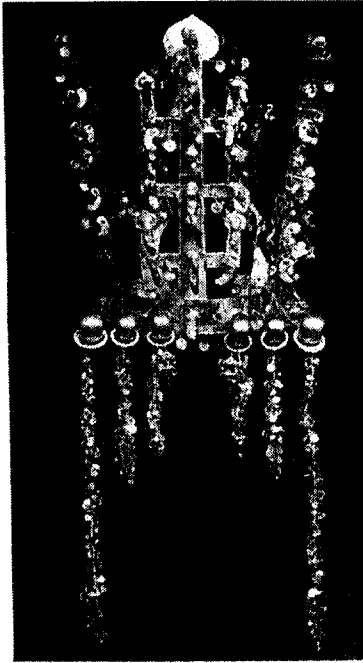
- Ⅱ-1식: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 3개이고 鹿角形立飾이 2개 세워져 있는 경우
- Ⅱ-2식: Ⅱ-1식 과 立飾은 동일한 형태이나 관 상부에 十字形의 장식이 달려 있는 경우
- Ⅱ-3식: Ⅱ-1식과 동일한 구성방법이나 山字겹침식이 4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

#### 1. Ⅱ-1식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 3개이고 鹿角形立飾이 2개 세워져 있는 경우이다.

古新羅 慶州 皇南洞 第98號墳 北墳 出土 金冠(그림 10)

대륜의 중앙 좌우에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 3개를 세우고 후면 양측에 樹木形立飾 1개씩을 세우고 있다. 관 전면에 많은 瓔珞을 장식하고 있으며 입식의 分岐部, 屈曲部, 寶珠形 頂部에 曲玉을 달았는데 山字겹침식立飾 1개에 13개씩, 樹木形立飾 1개에 9개



〈그림 10〉 金製 樹木鹿角形立飾冠  
古新羅 皇南洞 第98號墳 北墳 出土  
『韓國美術全集』2

씩, 대륜에 11개로 모두 77개의 硬玉製 曲玉이 달려 있어 매우 화려하다. 대륜의 前面에는 前面 立飾을 중심으로 좌우 측에 각기 3개 합계 6개의 太鑲式 이 대칭으로 竝列되어 있고 각 태환식에는 긴 垂飾이 달려있다. 그 垂飾의 길이는 가장 바깥쪽의 것이 가장 길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짧아진다. 안쪽의 수식 끝에는 小形의 曲玉이 달려있다. 高 27.5cm, 臺輪幅 3.5cm, 臺輪直徑 17cm이다.<sup>11)</sup>

(가) 古新羅 金冠塚出土 金冠

높이가 약 44.4cm, 臺輪直徑이 19cm, 臺輪幅은 3cm인데 금제박판으로 만들어 先端이 寶珠形인 입식을 5개 세우고 있다. 대륜의 前面과 좌우에 양측

에 세운 입식 3개는 작은 가지가 뻗어 3단의 山字 結 疋 式을 이루고, 후면의 2개는 鹿角形을 이룬다. 대륜의 上下 周緣에는 윤곽에 따라 打出二重點線文을 돌렸다. 대륜과 입식의 전 표면에는 圓形小瓔珞 130개와 翡翠曲玉 57개를 금선으로 꼬아 매어 달았고, 대륜의 좌우에는 긴 垂飾이 달려있다. 이 수식은 10개의 中空玉이 가는 金鎖鑲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식 끝에는 金頭飾曲玉이 달려 있다.<sup>12)</sup>

(나) 加耶 梁山 夫婦塚 出土 金銅冠

높이가 약 38cm, 臺輪直徑이 18.8cm인데 臺輪幅 4.2cm의 금동박판제의 대륜에 선단이 寶珠形을 이룬 입식 5개를 각각 2개의 못으로 고정시켰는데 前面과 좌우양측에는 3단의 山字 結 疋 式 立飾 3개를 세우고 뒷면의 좌우 양측에는 鹿角形立飾 2개를 세웠다. 대륜의 上下 周緣에는 點線으로 鋸齒文을 돌리고 입식의 周緣에도 點線文을 돌렸으며 대륜과 입식 前面에는 금동선으로 圓形小瓔珞을 매달았다.<sup>13)</sup>

2. II-2式

II-1式 과 立飾은 동일한 형태이나 관 상부에 十字形의 장식이 달려 있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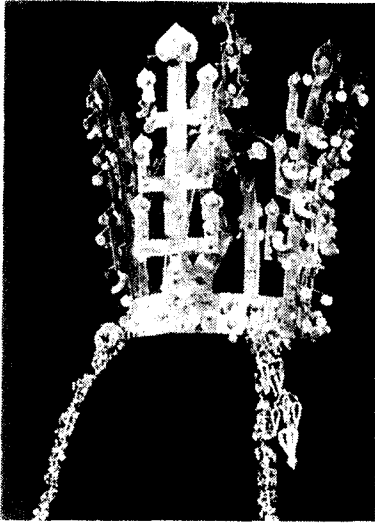
(가) 古新羅 瑞鳳塚出土 金冠 〈그림 11〉

높이가 30.7cm, 臺輪直徑이 18.4cm이다. 금제박판 대륜에 3단의 山字 結 疋 式 立飾 3개와 鹿角形立飾 2개를 세웠으며, 2개의 좁은 樑帶로 머리위의 중앙에서 直交하는 內帽形의 골격을 만들었고 그 교차점 정부에 역시 금판을 오려서 만든 鳳凰形 장식 3개를 붙이고 있다. 각 입식과 대륜에 곡옥, 영락을 일정한 배열규칙을 가지고 金絲로 매어 달았다. 그리고 태환으로 시작되어 대륜에 붙어 있는 垂飾은 각기 긴 줄과 짧은 줄의 한 쌍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펜촉형의 金板飾이 붙어 있다.<sup>14)</sup>

11) 文化財管理局,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發掘略報告』, 1974, pp.13-14.

12) 濱田青陵, 『慶州의 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1932, pp.24-25.

13)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朝鮮總督府, 本文. 圖版, 1927, pp.39-40.



〈그림 11〉 金製 樹木鹿角形立飾冠  
古新羅 瑞鳳塚出土  
-「韓國美術全集」2

(나) 古新羅 日本人 伊東慎雄氏所藏 金銅冠  
높이 21.6cm, 臺輪直徑이 17.5cm이다. 전면과 좌우 측면에 3단의 山字겹침式立飾 3개가 서있고 후면에는 鹿角形立飾 2개가 서 있는데 대륜에다 細帶 2매를 十字로 교차시켜 內帽形을 만들었다. 臺輪幅이 4cm인데 透彫되어 있어 특이하고, 대륜 좌우에는 垂下飾이 달려있는데 한쪽은 반쯤 결실되었다.<sup>14)</sup>

(다) 加耶 大邱 飛山洞 第37號墳 第1石槨 出土 金銅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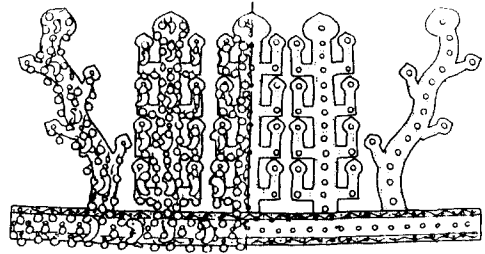
높이 30.6cm, 臺輪直徑 18.1cm, 山字겹침式立飾 높이가 27.2cm, 鹿角形立飾 높이가 약 29cm이다. 이 금동관은 폭 3.8cm의 금동박판제의 대륜에 先端이 寶珠形인 3단의 山字겹침式立飾 3개와 鹿角形立飾을 각각 2개의 못으로 대륜 내부에 고정시켰다. 그 내부는 중앙에서 直交하여 아치형을 이룬 2개의 樑帶가 있는데 그 교차되는 頂部에 반구형의 金銅座板을 놓

고 그 위에 3개의 小枝가 달린 圓筒形立柱를 세웠으며 소지의 선단에는 心葉形瓔珞이 매어 달려 있다. 대륜과 입식의 周緣에는 打出點線文이 돋혀 있고 앞면 전면에는 약간 배가 부른 心葉形小瓔珞이 불룩한 圓座위에 달려 있다.<sup>16)</sup>

### 3. II-3式

II-1式과 동일한 구성방법이나 山字겹침式이 4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가) 古新羅 天馬塚出土 金冠 〈그림 12〉



〈그림 12〉 金製 樹木鹿角形立飾冠  
古新羅 天馬塚出土  
-「天馬塚」

높이가 32.5cm, 臺輪直徑이 20cm, 臺輪幅이 4.5cm로서 被葬者가 착용한 채로 발견되었다.

비교적 두텁고 넓은 금관을 오려 구부려서 양단에 뚫린 2개의 구멍을 맞추어 꿰어 대륜으로 하고 그 위에 4단의 山字겹침式立飾 3개와 鹿角形立飾 2개를 세운 전형적인 신라금관이다.

대륜에는 상하에 각각 打出點列로 平行線帶를 돌리고 圓形瓔珞을 金絲로 매달고, 따로 후두부를 제외한 全周에 비취곡옥을 역시 금사로 매달고 있다. 한편 山字겹침式立飾은 基部의 雙孔에 금못을 박아 대륜에 고착시킨 것이며 넓은 主幹에 좀 얇은 橫枝 4개를 배치한 것으로 가지 끝은 모두 寶珠形이다. 그

14) 韓炳三(編), Op.cit. p.135.

15) 梅原末治, “2個의 金銅冠”, 「考古美術」, 第8卷2號, 1967, pp.1-3.

16) 「大正十二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3, pp.21-22.



리고 전체의 윤곽을 따라 2條의 打出點列을 돌렸고 主幹에는 14개, 橫枝에는 寶珠形에 1개,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에 각 1개씩의 打出圓蓋形을 두고 거기에 금사로 圓形環路을 1개씩 매달고 다시 그 영락과 영락사이에 쌍공을 뚫어 금사로 소형옥을 1개씩 매달고 있는데 이 곡옥은 主幹에 5개, 橫枝에 각 2개씩 13개이며 그것들이 主幹頂部의 1개를 제외하고는 3개씩이 橫列하여 상하 4단으로 되도록 배치하였는데, 여기의 곡옥은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게 하여 시각적으로나 중력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sup>17)</sup> 한편으로는 전술한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에서의 山字式이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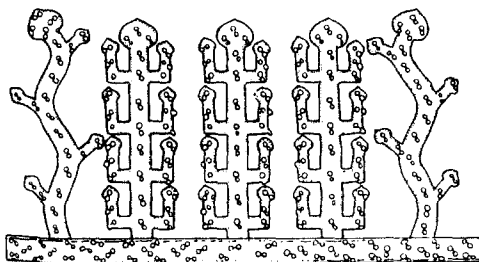
한편 鹿角形立飾에는 좌우에 각 2枝씩의 分枝가 나와 있고 點列輪廓, 圓形環路, 主幹에 5개의 小形曲玉이 달려 있다.

이 금판에는 따로 소환에 길이 각각 23.5cm, 5cm의 大小 두줄기 佩飾이 달린 耳飾形장식이 一雙 있는데 대륜에서는 분리되어 있고 따로 이것을 부착할 장치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매달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타금판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륜에 양옆에 길게 매달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장식의 긴 쪽은 兩端의 고리 달린 捲線金具를 9개 연결하고 곳곳에 금선으로 葉形環路을 매달고 끝에는 三翼形장식을 달았고 짧은 쪽은 環路달린 球形花籠形 2, 同半球形 1을 연결하고 끝에 葉形尾飾 3개를 달은 것인데 긴 쪽의 三翼形尾飾은 3매의 금판을 각각 중심부에서 좌우로 약간 꺾은 것을 서로 등을 대어 합쳐 상하 두군데서 금사를 꿰어 結着시켰다.

#### (나) 古新羅 金鈴塚 出土 金冠 <그림 13>

높이가 27cm이고 臺輪直徑이 16.4cm이다. 폭이 약 2.8cm의 금제박판 대륜에 앞면과 양측에 4단의 山字겹침식立飾 3개를 세우고 후면의 양측에 鹿角形立飾 2개를 세웠다. 대륜의 상하 周緣에는 打出二重點線文이 돌려 있고 小圓形環路 59개로 장식하였으나

곡옥의 配飾과 垂飾은 없다.<sup>18)</sup>



<그림 13> 金製 樹木鹿角形立飾冠

古新羅 金鈴塚 出土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이상으로 樹木鹿角形立飾冠의 樣式을 古新羅, 加耶의 고분출토품을 함께 분류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출토품만을 비교하면, 古新羅地域에서는 II-1, II-2, II-3의 모든 樣式이 있으나, 加耶地域에서는 II-1, II-2 樣式만이 출토되고 있는데 前述한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과 마찬가지로 出土例가 적어 계속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같은 樹木鹿角形立飾冠의 양식도 샤머니즘과 관련된 것으로 후대에까지 보수성이 강한 시베리아 샤만의 관모에 남아 있다. 즉 前述한 'Tay'라 불리는 에네트족 샤만의 관모 <그림 9>과 오스티악족 巫冠 <그림 14>을 보면 이들 관의 앞과 좌우에 술처럼 늘어뜨린 것은 샤만을 인간세상과 격리시켜 주위 모든 물체와 현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樹木鹿角形立飾冠의 양식과 매우 흡사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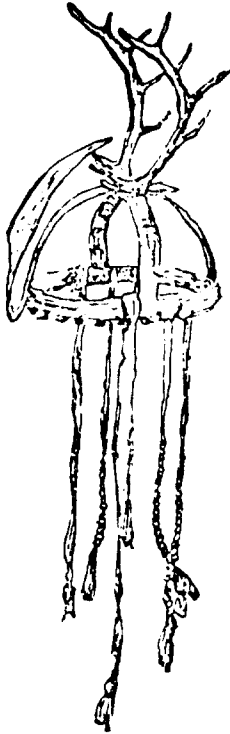
또한 樹木形이 聖樹文에서 온 것과 함께 鹿角形立飾이 상징하는 사슴은 巫獸또는 우주적인 존재로서 알타이 여러 부족의 샤만들은 사슴의 몸으로 化身하는 예도 있다.

즉, 冠帽에 樹木形과 鹿角形을 장식하는 樣式은 스키타이·시베리아계통의 遊牧騎馬民族들의 관에 나뭇가지와 사슴뿔을 장식하는 형식이 전해진 것으로

17) 『天馬塚』, p.92.

18) 梅原末治, 『慶州金鈴塚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4, pp.70-72.

해석되며, 古新羅, 加耶의 樹木鹿角形立飾冠은 보다 정제된 형태로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오스티악족 巫冠  
-“東北亞脈絡속의 韓國神話”

#### IV. 結 論

이상으로 三國時代 金冠類로 불리는 臺輪式立飾冠 중에서 古新羅, 加耶古墳출토 樹木形(山字겹침식)과 樹木鹿角形立飾冠의 樣式 分類에 따른 形態를 考察하였다.

먼저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에는 立飾의 수와 山字겹침의 수, 형태에 따라 대략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臺輪 위에 1단의 山字式立飾을 3개 세운 양식(Ⅰ-1式)과 둘째, 臺輪 위에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을 3개 세운 양식(Ⅰ-2式), 셋째, Ⅰ-2式과 그 구성방

법은 같으나 山字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Ⅰ-3式), 넷째, 臺輪 위에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을 5개 세운 양식(Ⅰ-4式)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樹木形(山字겹침식)立飾冠들에 사용된 山字겹침식의 양식은 서아시아 源流의 聖樹文에서 시작되어 스키타이의 山字겹침식文樣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山字겹침식의 先端이 寶珠形으로 되어 있는 점도 동일하다 하겠다. 또한 이같은 山字겹침식 立飾은 샤만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

樹木鹿角形立飾冠은 山字겹침식의 형태와 冠上部의 十字形의 有無에 따라 대략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3단의 山字겹침식立飾 3개이고 樹木形立飾이 2개 세워져 있는 경우(Ⅱ-1式)와 둘째, Ⅱ-1式과 立飾은 동일한 형태이나 冠 上部에 十字形의 장식이 달려 있는 경우(Ⅱ-2 式), 셋째, Ⅱ-1式과 동일한 구성방법이나 山字겹침식이 4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Ⅱ-3式)를 들 수 있다.

이같은 관모에 樹木形과 鹿角形을 장식하는 양식은 샤머니즘과 관련된 것으로 그 원류를 스키타이, 시베리아계통의 유목민족들의 관에 나뭇가지와 사슴뿔을 장식하는 형식이 전해진 것으로 해석되며 후대에까지 보수성이 강한 시베리아 샤만의 관모에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이 樹木形·樹木鹿角形立飾冠은 聖樹와 巫獸사상이 결합된 샤만적 관모로서 祭政一致 시대의 古代王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초월적인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다 정제되고 장식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江上波夫, “シバルガンの遺寶”, 「新潮古代美術館」, 東京: 新潮社, 1982.
- 2)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서울: 조선일보사, 1991.
- 3) \_\_\_\_\_, 「湖巖蒐集韓國美術特別展」, 1971.
- 4) 金文字, 「韓國服飾文化的 源流」, 서울: 民族文化

- 社, 1994.
- 5) 金烈圭, “東北亞脈絡속의 韓國神話”, 「古代韓國文化의 隣接文化와의 關係」,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6) 김원룡· 최몽룡· 광병훈, “경주교동계고분 발굴조사보고”, 「경주지구고분발굴 조사보고」제1집, 경주사적관리소, 1975.
  - 7) 金載元, 「壺杆塚과 銀鈴塚」. 서울: 乙酉文化社, 1946.
  - 8) 東亞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發掘調査報告」. 1970.
  - 9) 「大正十二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3.
  - 10)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4.
  - 11), “2個의 金銅冠”, 「考古美術」, 第8卷2號, 1967.
  - 12) 文化財管理局,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發掘略報告」. 1974.
  - 13) \_\_\_\_\_, 「天馬塚」. 1974.
  - 14) \_\_\_\_\_, 「慶州皇南洞第98號墳(南墳)發掘調査略報告」. 1976.
  - 15) 濱田青陵·梅原末治,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大正十一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9.
  - 16) 濱田青陵,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1932.
  - 17)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朝鮮總督府, 本文, 圖版, 1927.
  - 18)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 19)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 20) 李弘植(譯), 「시베리아諸民族의 原始宗教」, G. Nioradze 저, 서울: 新丘文化社, 1976.
  - 21) 秦弘燮,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서울: 同化出版社, 1976.
  - 22) 太田晴子, “中國戰國時代における樹木中心文様の西方からの傳來について” 「美術史研究」 第3冊, 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
  - 23) 「韓國의 美」22, 古墳美術, 중앙일보 『季刊美術』, 1987.
  - 25)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公社, 1975.
  - 26) M.I.Artamonov,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trans. Kupriyanova, London: Thames & Hudson.
  - 27) S.I.Rudenko, *Frozen Tombs of Siberia*, trans M. W. Thompson,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0.
  - 28) T. T. Rice. *The Scythians*, London: Thames & Hudson, 1957.
  - 29) YE.D.Prokofyeva, “*The Costume of an Enets Shaman*”, *Studies in Siberian shamanism* ed. Henry.N.Michall,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2.